

文

아는만큼 보인다 즐긴다

이제는 문화시민 선진예술교육현장 탐방

<1> 프로그램-왜 예술교육인가

링크센터 예술학교
日 가나자와 예술촌
문화애호가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역할 특특
애포문화허브 지향 광주
예술교육 서둘러야



◀日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



▶광주 예술교육 지원센터 수업.



▶뉴욕 링크센터 전경.
/사진=최현배 기자 choi@
광주일보 자료



▶광주시립미술관
실기수업.



▶성남아트센터
사랑방 클럽.

이 아마추어 예술가라고 할 만큼 문화가 생활 곳곳에 흐르고 있다. 그 중에서 가나자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예술촌이다. 1993년 다이와 방적공장이 이전하면서 철거 위기에 처했던 공장과 부지(9.7ha)를 가나자와시가 매입해 시민들의 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전문 예술가들의 발표무대는 많은데 비해 정작 시민들의 예술활동과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는 데 착안했다. 한 해 120억 원의 운영 경비 가운데 90%를 가나자와시에서 부담한다.

뉴욕링크센터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미래 지향적인 면모로 전 세계 아트센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75년 설립된 링크센터 산하 예술교육기관(Lincoln Center Institute for the Arts in Education·LCI)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예술교육학교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LCI 소속 예술가들이 특정교과목에 무용, 연극, 음악공연을 접목시킨 자체 커리큘럼으로 잠재된 학생들의 감성을 끌어 내고 있다. 매년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LCI를 통해 미래의 문화관광객이 되기 위한 자질을 배운다.

이처럼 예술교육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마인드를 끌어 올린다는 점에서 근래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들의 화두로 떠올랐다. 문화향유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험소비재의 특성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어린 시절 국악을 가까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 국악에 대한 감성에 다를 수 밖에 없다. 예술교육은 미래의 문화애호가를 길러내는 인큐베이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술교육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예술교육과 인프라는 시대의 흐름에서 비껴서 있다. 지난해 11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으로 광주는 다른 도시들 보다 문화인구의 저변이 풍성해야 함에도 주요 문화예술기관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시립미술관 어린이 갤러리의 경우 예산과 인력, 노하우 등의 부족으로 현재 광주 YMCA 문화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예술교육을 총괄하는 전문 에듀케이터가 없는 데다 한 해 수

십여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지향하는 광주는 올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광주의 '문화발전소'인 문화전당이 착공된지 11년만에 지난해 역사적인 개관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의 시너지가 결합되면 광주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이 광주에 문을 열었지만 문화전당의 콘텐츠는 적극적인 향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창설 20주년을 맞은 비엔날레의 관람객은 매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광주시립미술관이나 대표적인 공연장인 광주문예회관의 관객수도 도시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콘텐츠가 넘쳐나도 시민들이 이를 향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문화전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화주권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보는 창사 64주년 특집으로 '이제는 문화시민-선진예술교육현장탐방' 시리즈를 연재한다.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향유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부산, 대구, 성남, 대전, 런던, 파리 등 국내외 선진 예술교육현장을 찾아가는 이 시리즈는 문화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박진현 문화선원기자 jhpark@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의 취재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대한보청기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2013-GN1-10-0067
www.maxo.co.kr *이 제품은 '보청기'가 아닌,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1,2,3' **맥소 '애비오'** **맥소 '스쿠프'** **맥소 '크리스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견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가·18개월 무이자 할부·렌탈·편리한 직영 시스템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장안본점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달구벌)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36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99-9040